

상담자의 언어반응과 내담자의 친애욕구가 상담의 과정변인에 미치는 영향

김수현, 이장호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 및 내담자 요인이 상담의 과정변인(내담자의 상담자에 대한 호감도, 내담자의 자기탐색 및 감정 표현반응)에 미치는 효과를 밝혀보고자 했다. 상담자 요인으로서 상담자의 언어반응유형(사실기술적 또는 자기관여적)과 반응내용(긍정적 또는 부정적), 그리고 내담자 요인으로는 내담자의 친애욕구 수준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피험자를 대상으로 모의상담 대본을 사용한 실험방법과 실제 내담자를 대상으로 한 단일사례 연구방법을 병행하였다. 본 실험연구는 2(자기관여적/사실기술적 언어반응유형)×2(긍정적/부정적 반응내용)×2(친애욕구의 고/저) 완전무선 요인설계를 사용하였다.

모의상담 실험연구의 결과에서 밝혀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친애욕구가 높은 피험자는 상담자의 반응내용이 긍정적일 때는 사실기술 조건보다 자기관여 조건에서 상담자에 대해 더 높은 호감을 느끼나, 내용이 부정적일 때는 자기관여 조건보다 사실기술 조건에서 더 높은 호감을 느꼈다. 반면 친애욕구가 낮은 피험자는 내용이 긍정적일 때는 자기관여 조건보다 사실기술 조건에서 호감이 더 높았으나 내용이 부정적일 때는 반응유형에 따른 호감도 지각의 차이가 없었다. 또한 언어반응 유형과 내용은 상호작용하여 피험자의 반응에 영향을 미치지만, 일반적으로 반응내용은 호감도 지각에, 그리고 반응유형은 전문성 지각에 일차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정서적 탐색수준은 호감도 수준과 관계가 깊어서 호감도가 높아지는 조건에서 정서적 탐색수준도 깊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인지적 탐색반응은 친애욕구 수준에 관계없이 자기관여 조건보다 사실기술 조건에서 더 많았다.

상담 연구는 성과(outcome)와 과정(process)에 관한 연구로 크게 나누어진다. 1950년대 Eysenck (1952)가 제기한 심리치료는 과연 효과가 있는가 하는 아주 광범위한 물음에서 시작하여, 1970년대 까지만 해도 상담연구의 중요한 물음은 상이한 이론에 근거한 치료법들의 효과가 각기 다른가, 또는 어떤 접근 방법이 어떤 종류의 문제에 가장 효과적인가 등과 같이 주로 상담성과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그러나 점차 상담과정에 대한 광범위한 물음보다는 치료적 변화과정에서의 특정한 요소에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면서

(Garfield, 1983; Hill, 1982), 상담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의 원인, 치료적 변화의 본질, 치료적 변화에 관계하는 요소 등으로 연구자들의 관심이 옮겨졌다.

최근에 Greenberg(1983, 1986)는 상담에 관한 제반 연구들을 검토하고, 상담성과를 가져오는 상담시간 내의 내담자-상담자간 상호작용을 보다 미시적으로 분석하여 연구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같이 치료적 변화에 관련된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담과정 내의 변인에 대한 관심이 증대함과 아울러 상담의 목표에서도 최종 목표보다는 과정목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담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최근의 연구추세에 따라 서로 상호작용하여 내담자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영향을 미치는 상담자 요인과 내담자 요인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이 상담초기에 중요한 몇가지 과정목표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연구변인 및 문제제기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주로 언어적 수단을 통해 주고 받는 의사소통의 형식을 취하며, 상담자의 언어반응에서 핵심적인 것은 그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반응하느냐 아니면 주관적인 입장에서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객관적인 태도는 상담자가 내부에서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이나 판단, 느낌, 그리고 생각들을 내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상담을 진행시키는 태도이며, 주관적인 태도는 상담자가 상담장면에 깊이 개입하여 자신이 경험하는 느낌이나 생각들을 내담자에게 분경하게 전달하면서 상담을 진행시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정신분석적 입장과 인본주의적 입장에 관련되는 것인데, Bordin(1955)은 이 문제를 인지적-정서적, 또는 모호성-명확성(ambiguity-clarity)의 문제라고 표현하고 있다. 달리 표현하면 이러한 언어반응유형의 문제는 상담 장면과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개인적인 관여의 정도의 문제로 집약된다.

정신분석적 입장은 치료자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태도를 가질 것을 강조한다(Hoffler, 1985; Leider, 1983; Strachey, 1934; Wolf, 1983). 상담자가 중립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현실적인 관계를 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빈 스크린으로서의 상담자에게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을 투사할 수 있고, 전이관계를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Freud(1915)는 치료자의 중립성을 역전이(countertransference)와 연결시켜 언급하였다. 그는 치료자

자신의 감정이나 충동, 방어적 태도로 나타나게 되는 역전이를 계속 검토함으로써 중립성을 지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상담자가 중립성을 유지하려면 상담자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나 판단에 관한 언급을 피하고, 내담자의 행동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식의 반응은 사실기술적 언어반응(descriptive statement)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Rogers(1951)로 대표되는 인본주의적 입장에서는 상담자의 주관적 태도를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이는 상담자가 내담자와 그의 문제에 대해 강한 관심을 나타내는 것은 물론, 따뜻함과 심리적 밀접성을 느낄 수 있는 정서적 관여(emotional involvement)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담자는 경우에 따라서 내담자의 문제가 마치 자신의 것인양 반응할 수도 있으며, 내담자를 현실적인 대상으로 파악하고 현실적인 관계에 몰입하게 된다. 현실적인 관계란 진심어린(cordial)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Greenson, 1967), 치료자의 친절, 자기공개, 순수한 호감, 그리고 상호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인본주의적 입장의 상담자는 상담시간 중에 관찰된 내담자의 언행에 관한 상담자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표현하는 진술방식을 취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른바 자기관여적 언어반응(self-involving statement)이다. 이 반응은 내담자의 언행에 대한 상담자의 즉각적인 귀환반응으로서, 상담자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의견 그리고 판단을 그 근거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다(McCarthy & Betz, 1978; Remer, Roffly, & Buckholtz, 1983).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또 다른 연구변인은 상담자 언어반응내용의 긍정성-부정성으로서, 이는 앞에서 언급한 자기관여적-사실기술적 반응유형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상담자의 이론적 배경과 개인적 취향을 반영하는 중요한 상담자 변인으로 생각된다. 내담자가 하는 이야기 중에는 자기파괴적이고 부정적인 감정, 태도, 행동에 관한 것과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것들이 있다. 상담

자는 자신의 이론적 배경과 개인적 취향에 따라 부정적인 내용에 대해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도 하고, 또는 긍정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또한 상담자 언어반응내용의 긍정성-부정성이 내담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은 귀환반응에 관한 연구를 고찰함으로써 알 수 있다. Dyer(1972)는 귀환반응의 유형을 기술적, 평가적, 기술-영향적(평가적) 귀환반응으로 구분하였고, 말하는 이의 감정이나 판단이 포함된 정서적 언급인 평가적 귀환반응은 평가적 속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긍정적인 내용과 부정적인 내용으로 나누어 연구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Lauren(1985) 역시 타인이 표현한 평가적인 언급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내용의 유인가(valence)와 듣는 사람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지각된다고 보고하였다. 귀환반응에 관한 이러한 연구들은 내담자의 언행에 대한 상담자의 언어반응 내용이 긍정적이거나 또는 부정적이거나 하는 방향성이 내담자의 후속 반응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 한다.

여러 치료적 접근에서 내담자의 변화는 상담자와 내담자간의 상호작용과 함수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상담 및 심리치료 연구들은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미치는 영향에만 주로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왔다(Luborsky, 1971). 이와 같은 제한점을 극복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상담의 과정목표를 달성하는데 상담자의 반응유형과 반응내용의 긍정성-부정성 같은 상담자 변인들과 상호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담자 변인으로 친애욕구를 선택하였다. 친애욕구를 선택하게 된 것은 우선 이 욕구가 상담자의 자기관여 반응이 가지는 평가적 강화 속성과 예민하게 상호작용하는 내담자 특성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이 상담관계에서 상담자에 대한 호감이나 자기탐색 및 감정표현반응을 유발하는 데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는 점과, 마지막으로 친애욕구는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기본적인 욕구이면서 개인마다 그 정도가 다를 수 있고, 이 욕

구의 좌절은 개인에게 정서적인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선택의 근거이다. 그리고 Mehrabian(1970)에 의하면 한 개인의 친애욕구 수준은 성장기 동안 부모의 교육습관 및 강화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이 결과 정적 또는 부적 강화에 대한 기대가 개인마다 달라진다고 한다. 외부로부터 오는 정적 또는 부적 강화에 대한 기대가 개인마다 다르다는 사실은 상담자 반응에 대한 내담자의 기대 역시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내담자의 친애욕구 수준이 달라지면 상담자의 동일한 언어반응유형과 내용에 대한 반응이 달라질 것으로 여겨진다.

내담자가 상담자에 대해 가지는 호감정도는 상담 초기에 매우 중요하며 치료적 추진관계, 즉 라포를 형성하는 기초가 된다(Garner, 1964; Heller & Goldstein, 1961). 본 연구에서 호감도에 특히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상담자에 대한 호감 정도가 상담관계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전 연구결과에서 호감도 지각이 높아도 상담자 선택에 호감도 정도가 잘 반영되지 않는 다든가(Dowd & Broto, 1982) 또는 태도 변화에 미치는 효과에 있어서 호감도 지각이 전문성 지각보다 떨어졌다는 보고(Strong & Dixon, 1971)가 있기 때문이다. 즉 실제 상담행동의 예측에 있어서 호감도의 영향이 일관적이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결과에 일관성이 없음은 기존 연구에서 측정된 호감도 내용이 전반적이지 못하고 인상적인 차원의 호감에 국한되었다는 점과 관련된 듯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에 대한 호감도 영역에 인상적이고 객관적인 차원의 '일반적인 호감도'와 자신을 깊이 개입시킨 주관적인 차원에서의 '개인적인 호감도'의 두 차원을 포함시켜, 좀 더 포괄적인 호감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Freud로부터 Rogers에 이르기까지 주요 심리치료 이론가들은 내담자의 자기탐색 및 자기공개를 치료과정의 주요한 요소로 보고 이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치료자의 기본적 역할은 내담자의 자기탐색과정을 촉진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Rogers,

1955 : Truax & Carkhuff, 1965). 내담자의 자기 탐색 및 통찰반응의 중요성 때문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그 결과는 일관성이 없는데 그 이유중의 하나는 각 연구자들이 사용한 자기탐색 및 통찰 반응에 대한 정의와 측정방법이 각기 다르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사용된 자기탐색 및 통찰반응에 대한 정의 및 측정방법은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Truax (1967, 1968)의 연구에서는 자기탐색반응을 내담자 자신의 문제와 관련된 진술로 규정하고 자기탐색의 수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에 의하면 자기탐색 수준이 깊어진다 함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던 내담자가 점차 자신의 경험에 대한 표현과 그 표현의 자발성을 증가시키고, 나아가서 감정적인 느낌의 표현과 내면적 검토가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됨을 의미한다. 자기탐색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내담자 내면의 감정적 느낌과 경험을 발견하려는 자발적인 노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자들에 비해서 자기탐색반응의 정서적 측면이 강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탐색을 '정서적 탐색'이라고 명명하기로 한다. Truax는 자기탐색수준의 깊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내담자의 언어반응을 절 또는 그 이상의 단락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둘째, Bergman(1951)은 내담자가 탐색적인 요구반응을 할 때 상담자가 해석, 반영, 구조화 또는 명료화 요구 등으로 반응하면 내담자가 이전의 반응을 반복하는지 또는 포기하는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탐색을 하고 통찰에 도달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러한 탐색반응은 문제 해결에 대한 상담자의 의견을 요구하는 것으로 탐색적인 요구를 의미해서, Bergman의 탐색반응은 상담자에 대한 내담자의 정서적 의존과 관계가 있으며 상담자의 도움을 얻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존적인 탐색반응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탐색적 요구반응'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러한 탐색반응은 내담자의 언어반응에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표현되므로 각 문장을 분석단위로 하여 그러한 반응의 문장빈도가 주요 평가치로 사용된

다. 셋째, 정방자(1986)의 연구에서 통찰반응은 내담자가 자신이나 남들의 성격과 행동속에서 주제, 패턴, 인과관계 등을 이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지적인 요소가 강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인지적 탐색반응'이라고 명명하고 이것 역시 내담자의 언어반응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므로 문장을 분석단위로 한다.

내담자가 과거 및 현재의 경험과 사건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정서에 관해서 자발적이고 진실되게 표현하는 것이 성공적인 상담의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Rogers(1951)에 의하면, 상담 초기에 내담자는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공개하여 정화시킴으로써 통찰 획득이 증진되고, 이로 인해 자기수용과 긍정적인 자아개념이 형성된다고 한다. 정신분석적 치료에서도 자유연상을 통해 마음속의 눌러있던 감정을 표현시키고 정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치료목표 중의 하나이다. 자유연상의 목표는 연상 내용에 있다기 보다는 이들 연상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정서적 요소들간의 역동을 찾아내어 그것을 통찰케 하는 데 있다(Green & Murry, 1974 ; Korchin, 1976 ; Saul, 1972).

본 연구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과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지금까지의 자기관련 반응에 관련된 연구들(예 : McCarthy & Bety, 1978 ; Reynolds & Fischer, 1982)은 자기관련 반응이 상담자의 자기관련(self-referent) 반응이라는 점에서 이를 또 다른 자기관련 반응인 자기공개 반응과 비교하였다. 그리고 두 가지 자기관련 반응의 내용이 상담자 또는 내담자에 관련된 것으로 달라짐에 따라 내담자의 이후 행동에 미치는 상대적인 차이를 밝혀 보고자 한 것들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자기관련 반응이 상담자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의견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내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특히 평가적이고 강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자기관련 반응의 이와 같은 속성의 효과를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는 또 다른 자기관련 반응이나 다른 어떤 반응보다 일중

의 통제집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기관여가 포함되지 않은 객관적이고 사실기술적인 언어반응과의 비교가 필요하다.

최근에 자기관여 반응의 내용을 긍정과 부정으로 구분하여 두 가지 반응이 내담자의 상담자에 대한 지각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한 연구들(예: Andersen & Anderson, 1985)이 보고되었다.¹⁾ 그러나 상담자의 언어반응유형에 대한 고려없이 동일한 반응유형의 내용만을 구분하여 상대적인 효과를 보는 일은 별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상담자 반응의 유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때 미치는 효과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언어반응유형에 대한 고려없이 내용만을 비교하는 것이나 또는 내용에 대한 고려없이 유형만을 비교하는 일은 충분치 못하며, 반응의 유형과 내용이 동시에 고려되어 이들간의 상호작용 양상을 밝히는 일이 자기관여의 효과를 분명히 하는데 도움이 된다. 자기관여 반응의 연구에서, 특히 반응내용의 방향성에도 관심을 가지는 연구에서는 사실기술적인 반응방법이 비교되는 반응유형으로 적절하며 사실기술 반응의 객관성 및 중립성이 자기관여 반응의 효과를 밝히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자기관여 반응과 사실기술 반응을 비교하는 일은 심리치료 분야에서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상담자 반응의 주관성-객관성 문제와도 관련된 것으로, 상담장면에서 상담자가 어느 정도 깊이 관계에 개입하고 현실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상담관계 및 궁극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 효과적인지를 밝히는 일이 된다.

둘째,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 상호작용

하는 양방적인 영향과정임에도 불구하고 (Frank, 1973) 상담자 변인과 내담자 변인을 동시에 고려한 연구는 드문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특성뿐만 아니라 내담자의 특성에도 관심을 가지고, 상담자 반응의 평가적이고 강화적인 속성을 고려하여 이와 민감한 상호작용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내담자의 친애욕구 수준을 내담자의 성격특성으로 고려하고자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호감도 척도에 일반적인 호감도와 개인적인 호감도의 두 차원을 포함시킴으로써, 과정목표의 지표로서 상담자에 대한 호감도를 좀 더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또 두 차원이 서로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도 밝혀보고자 한다.

네째, 호감도나 전문성과 같은 상담자에 대한 내담자의 지각은 상담관계 및 궁극적인 상담목표의 달성에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상담자에 대한 지각은 내담자의 자기보고를 통해 얻어지는 내용으로, 자기보고식 방법 이외의 관찰가능한 행동적인 자료는 내담자의 변화를 예측하는데 좀 더 확실한 과정목표의 지표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내담자의 언어반응 내용 중 과정목표의 지표가 되는 반응, 특히 자기탐색 및 통찰 그리고 감정표현 반응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McCarthy(1982)나 Remer 등(1983)의 연구에서도 정서표현 반응을 다루었으나 이들 연구에서는 정서를 표현하는 단어는 주어의 인칭에 관계없이 전부 정서단어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자기에 관련된 정서적인 반응(affective self-reference)이 내담자의 변화 유발에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정서단어 보다는 문장의 형태로 표현된 자신에 관련된 정서반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탐색 및 통찰반응에 관한 연구에서 그 정의와 측정도구, 그리고 측정단위가 달라짐으로써 일관성 있는 연구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보완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내담자의 자기탐색 및 통찰반응을 내용이나 분석단위에 따라 세분하여 상담자의 언어반응과 내담자의 탐색 및 통찰 반응간의 관계를 구체화시키고자 한다.

주 1. 긍정적인 자기관여 반응: 내담자의 행동이나 언급에 대해 상담자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긍정적인 감정이나 반응을 표현하는 것, 또는 내담자의 감정이나 경험에 일치하는 상담자의 감정이나 반응을 표현하는 것(예: "당신은 지금 자신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난 그 점이 아주 좋게 느껴지는 데요.")

부정적인 자기관여 반응: 내담자의 행동이나 언급에 대해 상담자가 부정적인 감정이나 반응을 표현하는 것, 또는 내담자의 감정이나 경험에 일치하지 않는 상담자의 개인적 감정이나 반응을 표현하는 것(예: "당신이 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하고 자신을 보러하지 않으니 내가 지루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모의상담 실험연구

본 연구의 예언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모의상담 실험연구를 실시하였다.

예 언

자기관여반응이 내담자의 상담자 지각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비교적 객관적인 요약이나 해석보다 자기관여반응 또는 자기공개반응 등과 같은 상담자의 자기표출반응이 상담자에 대해 더 높은 호감을 유발하며(Dowd & Boroto, 1982), 부정적 자기관여반응보다 긍정적 자기관여반응이 더 신뢰롭고 호감이 가는 것으로 지각되었다(Andersen & Anderson, 1985; Remer et al., 1983). 또한 Jacobs, Jacobs, Feldman 그리고 Cavior(1973)의 귀환반응에 관련된 연구를 보면, 직접 검증이 안되는 정서적 귀환반응에서는 귀환반응의 유쾌성(긍정성-부정성)이 믿음의 정도를 결정했으나, 현실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행동적 귀환반응에서는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 귀환반응 간에 믿음의 차이가 가장 적었다. 즉 언어반응 내용이 긍정적일 때는 자신에 관한 상대방의 반응은 객관적인 사실의 언급으로부터 주관적인 감정이나 판단을 포함한 표현 쪽으로 갈수록 듣는 이의 반응자에 대한 호감이나 믿음의 강도는 커지고, 반대로 내용이 부정적인 경우에는 주관적인 감정이나 판단을 포함한 표현쪽으로 갈수록 호감이나 믿음에 대한 지각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정서적인 귀환반응에서는 내용이 긍정 또는 부정으로 달라지면 믿음에 대한 평가가 양극화하는 경향이 있으나 행동적 귀환반응에서는 긍정 또는 부정에 따라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예비실험에서 언어반응유형과 내용에 따른 평가성 지각을 피험자에게 평정시킨 결과, 내용이 긍정적일 때는 자기관여 반응보다 사실기술 반응이 더 평가적으로 지각되었으나, 내용이 부정적

일 때는 사실기술 반응보다 자기관여 반응이 더 평가적으로 지각되었다. 자신이 평가받고 있다는 지각은 본인 자신에게는 위협적이고 비판적인 것으로 느껴질 수 있고 부정적인 내용일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사회심리학 연구(Aronson & Linder, 1965)에서 대인 호감의 교호성 원리에 의해 자신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한 상대에게는 호감도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평가성이 높게 지각된 조건에서는 상담자에 대한 호감도가 낮아질 것이 시사되므로, 평가성이 가장 높게 평정된 부정적인 자기관여 조건에서는 상담자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낮을 것이나 평가성이 가장 낮게 평정된 긍정적인 자기관여 조건에서는 호감도가 가장 높아질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예비실험에서 나타난 결과와 타인의 강화에 대해 의존적인 친애욕구가 높은 사람들은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와 거부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높다는(Fishman, 1965; Taylor, 1970) 점과 앞에서 언급한 교호성 원리를 고려할 때 친애욕구가 높은 사람은 상대방의 평가적인 판단에 더 예민하게 반응할 것이다. 즉 상담자 반응의 내용이 부정적일 경우에 사실기술 반응보다 자기관여 반응을 더 평가적으로 지각했으므로, 친애욕구가 높은 피험자들의 상담자에 대한 호감도는 평가성 지각과는 반대로 자기관여 반응조건보다 사실기술 반응조건에서 더 높을 것이다. 그러나 내용이 긍정적일 때는 자기관여 반응보다 사실기술 반응을 더 평가적으로 지각했으므로 호감도는 사실기술 반응조건보다 자기관여 반응 조건에서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하면 친애욕구가 높은 내담자에서는 상담자 언어반응유형과 내용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반면 친애욕구가 낮은 피험자는 평가적인 판단에 덜 예민하고 의존성이 적으므로, 이와 같은 경향이 나타나지 않거나 미약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호감도 지각 외의 언어반응-전문성 지각 및 인지적 탐색반응제외-은 호감도나 평가성 지각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이의 도출과정에 대한 언급은 지면 관계상 생략한다).

기법을 가능한 한 배제시키고, 다음 말로 이끌기 위한 개방적 질문(leading question)이나 단순반응 또는 감정이나 내용의 간단한 반영 등으로 구성하였다.

네 조건의 상담자 진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긍정적인 자기관여반응(예: "그렇게 속이 상하는 데도 엄마에 대해 연민의 정을 느끼고 엄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X씨의 착한 마음씨가 아닌가 싶어서 X씨에게 호감이 가네요."), 부정적인 자기관여반응(예: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데도 엄마의 사랑을 얻기 위해 엄마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 왔더니…… 내가 다 답답해 지는군."), 긍정적인 사실기술반응(예: "그렇게 속이 상하는 데도 엄마에 대해 연민의 정을 느끼고 엄마를 이해하려고 노력해 왔군요."), 그리고 부정적인 사실기술반응(예: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데도 엄마의 사랑을 얻기 위해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무조건 따라왔군요.")이다.

친애욕구척도. 친애욕구 정도에 따라 피험자를 분류하기 위해 차재호(1984)의 동기진단검사에 포함되어 있는 친애욕구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Mehrabian(1970)의 '친애욕구척도(Need-Affiliation Scale)'를 토대로 제작된 것으로, 친애경향성을 측정하는 21개 문항과 배척민감성을 측정하는 2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속변인의 측정도구

상담자평가척도. 모의 내담자인 피험자의 상담자에 대한 호감도와 전문성 지각을 측정하기 위하여 상담자평가척도(김수현, 1986)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예비연구에서 얻어진 상담자에 대한 피험자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한 내용과 CRF(Counselor Rating Form; Barak & Lacrosse, 1975)의 문항을 중심으로 하여 본 연구자가 제작한 척도로 총 40개의 7점 척도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내용에는 내담자의 상담자에 대한 호감도, 전문성, 성실성에 대한 지각이 포함되는데, 특히 호감도 지각은 일반

적인 호감도와 개인적인 호감도로 나누어져 있다.

정서적 탐색수준 분류척도.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의 정서적 탐색수준을 Carkhuff(1969)가 사용한 자기탐색척도의 기준에 따라 5단계 수준으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정서적 탐색반응을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본다면 자신과 전혀 관련이 없는 언급에서 자신이나 자신의 주변문제와 관련된 영역에 대해 점차 자신의 감정적 느낌을 표현하고, 자기세계에 대한 새로운 느낌과 경험을 발견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내면적 검토를 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어 갈수록 그 깊이가 점차 깊어진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인지적 탐색반응 분류기준. 모의상담 연구방법을 통한 첫 면접에서는 알은 수준의 자기이해 및 통찰 반응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상담에서 보이는 것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자기탐색반응들이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날 피험자의 인지적 탐색 반응을 보다 적절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본 연구자는 알은 수준의 자기이해 및 통찰반응과 이러한 반응들을 촉진시키는 막연한 추측 및 회망 등의 반응을 포함시킨 인지적 탐색반응 분류기준을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탐색적 요구반응 분류기준. Bergman(1951)이 사용한 탐색반응의 개념과 예비실험에서의 반응내용에 근거하여 탐색적 요구반응의 분류기준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반응기준에는 문제해결 방법이나 바람직한 행동선택 등에 관한 상담자의 의견, 평가, 그리고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탐색적 노력을 포함시켰다.

감정표현반응 평가기준. 본 연구에서는 McCarthy와 Betz(1978)가 감정표현 반응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 분류기준을 사용하였다. 그들은 감정표현반응 평가의 분석단위로 단어를 사용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내담자 자신과 관련된 감정을 표현한 문장을 분석단위로 하였다.

실험설계

본 연구의 실험설계는 상담자 반응유형(2) × 반응

내용(2)×친애욕구(2) 완전무선 요인설계이다. 독립변인은 상담자의 반응유형(자기관여적/사실기술적)과 반응내용(긍정성/부정성), 그리고 내담자의 친애욕구(고/저) 수준이다. 상담자의 반응유형 중 자기관여 반응은 상담중에 보이는 내담자의 언급이나 행동에 대해 상담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이나 의견을 내담자에게 그대로 표현해 주는 방법이다. 사실기술 반응은 상담자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판단을 배제시키고 관찰된 현상에 대해 가능한한 객관적으로 반응해 주는 방법을 의미한다. 긍정적인 반응내용은 내담자의 건설적인 감정이나 의견, 태도 또는 긍정적인 행동이나 사실에 대한 언급이며, 부정적인 반응은 내담자의 자기과격적이고 부정적인 감정, 태도, 행동 또는 사실에 대한 언급이다. 4가지 종류의 상담자 반응은 6개 면담대본 각각에서의 마지막 상담자 반응을 통하여 조작되었다. 내담자의 친애욕구는 내담자에 따라 그정도가 다른 개인차 변인으로 타인의 평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인데, 타인으로 부터 오는 정적인 강화에 대한 기대와 부적인 강화에 대한 회피 경향을 의미한다. 친애욕구 수준은 친애욕구척도(차재호, 1984)상의 점수로 구분되었다.

종속변인은 상담자에 대한 내담자의 호감도와 지각된 전문성, 내담자의 자기탐색반응(정서적 탐색 수준, 인지적 탐색반응빈도, 탐색적 요구반응빈도), 그리고 감정표현반응(빈도)이다. 상담자에 대한 내담자의 호감도와 전문성 지각은 상담자평가척도(김수현, 1986)에 의해 평정되었다. 내담자의 자기탐색반응과 감정표현반응은 각각의 해당되는 분류척도 및 기준에 의해 분석되었다.

실험절차

친애욕구척도 점수에 의해 선정된 피험자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실험시간을 약속하였다. 실험은 칸막이가 되어 있는 실험실에서 헤드폰을 끼고 2-4명씩 집단으로 실시되었다. 피험자가 실험실에 들어오면 녹음기가 앞에 놓인 책상에 앉게 하고, 상담장면을 통한 대인공감에 관한 연구로서 크게 부

담이 되지 않는 연구임을 알려주었다. 실험은 녹음된 내용을 듣는 것으로 시작되며 녹음된 내용에서는 먼저 지시문을 듣게 된다.

지시문과 이어서 피험자는 4가지 상담자 반응조건 중 해당되는 조건의 상담장면 대본을 듣게 되었다. 6개 대본 중 세번째 대본까지 각 대본의 마지막 상담자 반응이 끝날 때 마다 녹음테이프를 정지시키고, 자기 자신이 상담 중의 바로 그 내담자라고 생각하면서 상담자의 언급에 대해 무슨 이야기를 할 지를 나누어 준 종이에 기록하게 하였다. 6개 대본을 다 듣고 난 뒤 피험자의 상담자에 대한 호감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상담자평가척도를 실시하였다. 상담자평가척도를 실시한 후에는 실험처치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사후 질문지에 응답케하였다. 실험이 끝난뒤 실험의 목적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고 실험이 끝날 때까지 실험내용에 대해 비밀을 지켜 줄 것을 부탁하였다. 실험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시간이었다.

결과의 분석

상담자에 대한 호감도. 친애욕구 고, 저 집단을 구성하여 각 집단의 호감도 점수에 따라 상담자 반응유형(2)×반응내용(2)×친애욕구(2)의 삼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호감도 점수는 일반적 호감도, 개인적 호감도, 전체호감도(일반적+개인적)에 대해서 각각 분석되었다. 호감도 각 영역간의 상관정도를 검토해 본 결과 일반적 호감도와 개인적 호감도사이의 상관은 .63이며, 일반적 호감도 및 개인적 호감도의 전체 호감도와외 상관은 각각 .89, 그리고 .91이었다. 전체 호감도 점수는 일반적 호감도나 개인적 호감도 점수 양쪽과 상관이 높았으므로 이에 의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내담자의 언어반응. 피험자의 언어반응은 실험하는 도중에 상담자의 반응을 들은 뒤 피험자로 부터 얻어낸 자유언어반응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박사과정 재학, 석사학위 소지자인 두사람의 국문학 전공인이 언어반응 전체를 의미문장 반응단

예언 1-1: 친애욕구가 높은 피험자들은 상담자의 반응내용이 긍정적일 때 사실기술 조건보다 자기관여 조건에서 상담자에게 호감을 더 가질 것이나, 반응내용이 부정적일 경우는 자기관여 조건보다 사실기술 조건에서 호감을 더 가질 것이다. 반면 친애욕구가 낮은 피험자들에서는 위와 같은 반응유형과 내용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예언 1-2: 자기관여 조건보다 사실기술 조건에서 상담자의 전문성이 더 높게 지각될 것이다.

예언 2-1: 친애욕구가 높은 피험자들은 반응내용이 긍정적일 때, 사실기술 조건보다 자기관여 조건에서 더 깊은 정서적 탐색수준을 나타낼 것이나, 반응내용이 부정적일 때는 자기관여 조건보다 사실기술 조건에서 더 깊은 정서적 탐색수준을 나타낼 것이다. 반면 친애욕구가 낮은 피험자들에서는 위와 같은 반응유형과 내용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예언 2-2: 자기관여 조건보다 사실기술 조건에서 인지적 탐색반응이 더 많이 나타날 것이다.

예언 2-3: 친애욕구가 높은 피험자들은 반응내용이 긍정적일 때 반응유형에 따른 탐색적 요구반응에 차이가 없을 것이나, 반응내용이 부정적일 때는 사실기술 조건보다 자기관여 조건에서 탐색적 요구반응을 더 많이 나타낼 것이다. 그러나 친애욕구가 낮은 피험자들에서는 이상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예언 3: 친애욕구가 높은 피험자들은 반응내용이 긍정적일 때 사실기술 조건보다 자기관여 조건에서 더 많은 감정표현반응을 할 것이나, 내용이 부정적일 때는 자기관여 조건보다 사실기술 조건에서 더 많은 감정표현반응을 할 것이다. 반면 친애욕구가 낮은 피험자들에서는 위와 같은 반응유형과 내용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방 법

피험자

S대 및 S여대에서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1,2학년

남(250명) 여(500명) 대학생 750명을 대상으로 동기진단검사(차재호, 1984)를 실시하였다. 동기진단검사의 친애욕구 점수가 상위 15% 그리고 하위 15%에 속한 대학생들 실험대상자로 일단 선정하였다. 남녀의 친애욕구 점수 평균이 다르므로 남자는 친애욕구점수가 28점 이상 그리고 0점 이하인 사람이 실험대상자로 선정되었고(전체 평균은 15.27, 표준편차는 14.93), 여자는 30점 이상 그리고 2점 이하인 사람이 선정되었다(전체 평균은 17.82, 표준편차는 14.35). 실험에 응한 피험자중 최종적으로 호감도의 자료분석에 포함된 피험자 수는 각 집단별 17명씩 136명(남자 43명, 여자 93명)이었으며, 언어반응의 자료분석에 포함된 피험자 수는 집단별 24명씩 192명(남자 56명, 여자 136명)이었다.

독립변인의 조작도구

상담장면 대본.²⁾ 자기관여적-사실기술적 반응유형 변인과 긍정적-부정적 내용변인의 조작은 상담장면 대본의 내용을 상담자가 각 실험조건에 적합하도록 구성함으로써 조작하였다. 상담대본은 자신에 대한 불만 및 가족관계, 대인관계 문제가 주요 호소 내용인 모의상담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6개 부분으로 구성되었고 약 25분간 진행된다. 각 대본의 마지막 상담자 언급은 긍정적 자기관여반응, 부정적 자기관여반응, 긍정적 사실기술반응, 부정적 사실기술반응 등 4가지 실험조건에 맞도록 조작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 피험자에게 한 가지 조건의 반응이 6번 반복하여 주어졌다. 실제 상담에 종사하고 있으며 박사과정 재학 및 박사학위 소지자인 3명의 평정자가 4가지 조건의 상담자 반응에 대해 평정한 결과 평정자간 일치도는 상관계수 .89-.97이었다. 각 대본의 마지막 상담자 반응을 제외한 나머지의 모든 상담자 반응들은 동일하였다. 이 반응들에서는 상담자의 언어반응이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석 또는 직면 등 특수한

주 2. Remer(1978)는 녹화나 녹음 또는 기록에 의한 상담대본 제시 방법들이 피험자 반응에 미치는 효과가 서로 다르지 않음을 보고하였다.

위로 나누는 뒤 불일치된 문장은 서로 토론하여 일치된 문장으로 나누었다. 의미단위로 나누어진 문장은 자기탐색반응 분류척도 및 감정표현반응 분류체계를 사용하여 세 사람의 평정자가 먼저 연습시간을 거친 뒤 평정하였다. 세 사람의 평정자는 상담심리학을 전공한 심리학자로서 한 명은 박사학위 소지자이며 두 명은 석사학위 소지자였다. 세 사람 또는 두 사람의 평정자가 동일한 반응으로 평정한 문장은 그대로 사용하였고, 세 사람이 모두 다르게 평정한 문장은 서로 의논하여 최종적으로 일치시켰다. 내담자의 언어반응에 대한 세 평정자간 일치도는 유관계수 .72~.78이었다. 관심의 대상이 되는 반응의 분석은 해당되는 반응의 빈도수에 의해, 그리고 피험자에 따라 언어반응의 양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 피험자의 전체언어반응 빈도(문장수)에 대한 자기탐색 및 감정표현반응 빈도(문장수)의 백분율에 따라 상담자 반응유형(2)×반응내용(2)×친애욕구(2)의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서적 탐색수준의 분석은 세 번의 내담자 반응에 대한 세 평정자의 평정치를 합산하여 총점으로 분석하였다. 인지적 탐색반응과 탐색적 요구반응은 각각 해당되는 분류척도를 사용하여 문장단위로 분류하고, 빈도에 의해 분석되었다. 감정표현반응은 감정표현반응 평가기준에 따라 분석하였다.

결 과

상담자에 대한 호감도

남자 피험자와 여자 피험자의 일반적, 개인적, 전체호감도 점수의 평균 각각에 대해 t검정한 결과 두 집단의 호감도 점수 평균 간에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으므로 남녀 피험자 자료를 섞어서 분석하였다.

상담자의 반응유형과 반응내용, 그리고 내담자의 친애욕구 수준에 따른 각 집단별 전체호감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과 같다.

표 1. 반응유형, 반응내용, 친애욕구에 따른 집단별 전체호감도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괄호안)

친애욕구 반응유형	긍 정		전체	부 정		전체
	자기관여	사실기준		자기관여	사실기준	
고	101.24(16.79)	78.35(11.93)	89.80	67.94(14.20)	79.76(10.68)	73.85
저	72.59(15.87)	84.71(19.11)	78.65	71.12(22.99)	73.35(15.35)	72.24
전체	86.91	81.53	84.22	69.53	76.55	73.04

주: 점수의 범위는 20-140점이며 점수가 클수록 높은 호감도를 나타냄.

전체호감도 점수를 변량분석한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에 나타난 반응내용의 주효과를 검토해 보면, 부정적 반응의 피험자보다 긍정적 반응을 받은 피험자들이 유의하게 더 높은 전체호감도를 나타냈다. 친애욕구의 주효과는 친애욕구가 높은 집단의 호감도점수 평균이 81.82이고, 친애욕구가 낮은 집단은 75.45로서 친애욕구가 낮은 피험자들에 비해 높은 피험자들이 유의하게 더 높은 전체호감도를 보였다. 반응유형×반응내용의 상호작용 효과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긍정적 내용에서는 자기관여 반응과 사실기술 반응 집단 간의 차이가 없었

표 2. 전체호감도 점수의 변량분석 결과

변산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반응유형(A)	23.06	1	23.06	0.08
반응내용(B)	4247.06	1	4247.06	15.26***
친애욕구(C)	1384.97	1	1384.97	4.98*
A×B	1309.44	1	1309.44	4.71*
A×C	1372.24	1	1372.24	4.93*
B×C	771.88	1	771.88	2.77
A×B×C	4224.74	1	4224.74	15.18*
오차	35619.68	128	278.28	

* P < .05. *** P < .001.

으나, 부정적 내용에서는 자기관여 반응보다 사실 기술 반응에 대해 더 높은 전체호감도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F(1, 64) = 4.27, P < .05$].

반응유형 × 친애욕구의 상호작용 효과는 사실 기술 조건에서는 친애욕구의 고저에 따른 호감도의 차이가 없었으나, 자기관여 조건에서는 친애욕구가 낮은 피험자들보다 높은 피험자들이 유의하게 더 높은 전체호감도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F(1, 64) = 10.94, P < .01$].

반응유형 × 반응내용 × 친애욕구의 삼원상호작용 효과를 검토해 보면 그림 2에서 보듯이, 친애욕구가 높은 피험자 집단에서는 반응유형 × 반응내용 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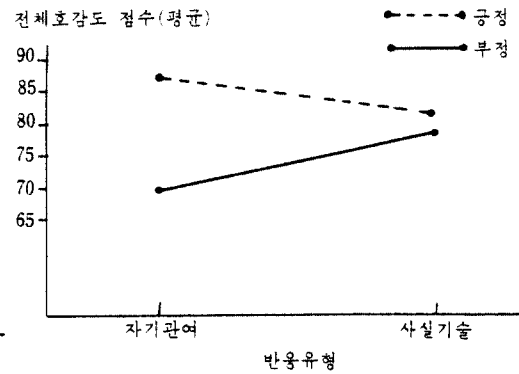


그림 1. 반응유형, 반응내용에 따른 상담자에 대한 전체호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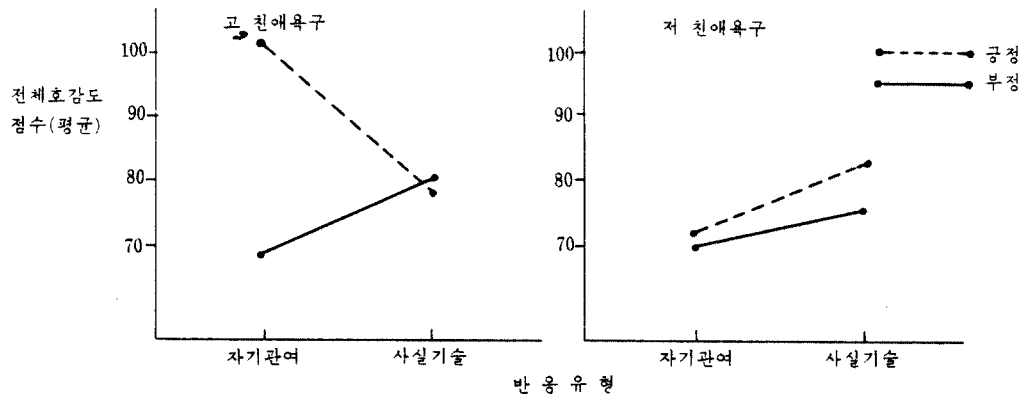


그림 2. 반응유형, 반응내용, 친애욕구에 따른 상담자에 대한 전체호감도.

순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했으나 [$F(1, 64) = 17.90, P < .001$], 친애욕구가 낮은 집단에서는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나아가서 친애욕구가 높은 집단에서 반응유형 × 반응내용의 단순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것은 상담자 반응의 내용이 긍정적일 때는 사실기술 조건보다 자기관여 조건에서 더 높은 호감 평정을 한 반면 [$F(1, 32) = 16.60, P < .001$], 반응내용이 부정적일 때는 자기관여 조건보다 사실기술 조건에서 유의하게 더 높은 호감 평정을 하였기 때문이다 [$F(1, 32) = 4.43, P < .05$]. 친애욕구가 낮은 피험자 집단에서는 반응유형 × 반응내용의 단순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반응내용이 부정적일 때는 반응

유형에 따른 호감도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내용이 긍정적일 때는 자기관여 조건에 비해 사실기술 조건에서 더 높은 호감 평정을 하였다 [$F(1, 32) = 4.66, P < .05$]. 이러한 결과는 호감도에 관련된 예언 1-1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상담자의 전문성지각 평정에 관한 결과 제시는 지면관계상 표와 그림은 생략하고 간단히 요약하고자 한다. 상담자에 대한 지각된 전문성 점수를 변량분석한 결과, 상담자 언어반응유형의 주효과 [$F(1, 128) = 4.24, P < .05$], 반응유형 × 반응내용의 상호작용 효과 [$F(1, 128) = 5.15, P < .05$], 그리고 반응유형 × 반응내용 × 친애욕구의 삼원상호작용 효과 [$F(1, 128) = 5.47, P < .05$]가 유의했다.

상담자 반응유형의 주효과를 검토해 보면, 자기 관여 조건에서는 전문성 점수 평균이 39.53이고 사실기술 조건에서는 43.00으로 자기관여 조건보다 사실기술 조건에서 유의하게 더 높은 전문성 평정을 하였다. 이처럼 자기관여 조건에 비해 사실기술 조건이 더 전문적으로 평정된 것은 긍정적 반응집단에서는 반응유형에 따라 전문성 평정에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부정적 반응집단에서는 사실기술 조건보다 자기관여 조건에서 지각된 전문성이 떨어졌음에 기인한다 [$F(1,64)=15.64, P<.001$]. 반응유형×반응내용×친애욕구의 삼원상호작용 효과

를 검토해 보면, 친애욕구가 높은 피험자 집단에서는 반응유형×반응내용의 단순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했으나 [$F(1,64)=10.62, P<.01$], 친애욕구가 낮은 집단에서는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나아가서 친애욕구가 높은 집단에서 반응유형×반응내용의 단순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것은, 상담자의 반응내용이 부정적일 때 자기관여 조건보다 사실기술 조건에서 유의하게 더 높은 전문성 평정을 하는 한편 [$F(1,32)=7.57, P<.01$], 반응내용이 긍정적일 때는 반응유형에 따른 전문성 평정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음에 따른 결과이다.

표 3. 반응유형, 반응내용, 친애욕구에 따른 집단별 정서적 탐색수준 총점의 평균 및 표준편차(괄호안)

반응내용 친애욕구 반응유형	긍 정		전체	부 정		전체
	자기관여	사실기술		자기관여	사실기술	
고	29.25(4.15)	27.54(4.58)	28.40	25.71(2.01)	28.67(5.19)	27.19
저	24.75(5.82)	27.50(4.99)	26.13	26.25(6.34)	24.67(6.58)	25.46
전체	27.00	27.52	27.26	25.98	26.67	26.33

주: 점수의 범위는 9-45점이며 점수가 클수록 정서적 탐색수준이 깊음을 나타냄.

자기탐색반응

정서적 탐색수준. 각 집단별 정서적 탐색수준 총점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정서적 탐색수준을 변량분석한 결과, 친애욕구의 주효과와 반응유형×반응내용×친애욕구의 삼원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다.

친애욕구의 주효과가 유의한 것은, 친애욕구가 낮은 피험자들에 비해 높은 피험자들이 더 깊은 정서적 탐색수준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반응유형×반응내용×친애욕구 삼원상호작용 효과를 검토해 보면 그림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친애욕구가 높은 집단에서는 반응유형×반응내용의 단순상호작용이 유의했으나 [$F(1,92)=4.03, P<.05$], 친애욕구가 낮은 집단에서는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친애욕구가 낮은 집단에서도 반응유형×반응내용의 단순상호작용 효과의 경향성은 나타나고 있다 [$F(1,92)=3.46, P<.10$]. 친애욕구가 높은 피험자 집단은 반응내용이 긍정적일 때는 반응유형에 따른 탐색수준에 차이가 없으나

반응내용이 부정적일 때는 자기관여 조건보다 사실기술 조건에서 탐색수준이 더 깊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F(1,46)=3.24, P<.10$]. 반면 친애욕구가 낮은 피험자 집단은 반응내용이 긍정적일 때는 자기관여 조건보다 사실기술 조건에서 탐색수준이 더 깊어지는 경향이 있으나 [$F(1,46)=2.80, P<.10$], 반응내용이 부정적일 때는 반응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에 따르면 친애욕구가 높은 피험자에서는 반응유형과 반응내용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으나 내용이 긍정적일 때는 사실기술 조건보다 자기관여 조건에서 탐색수준이 더 깊어지지 않았고 내용이 부정적일 때는 자기관여 조건보다 사실기술 조건에서 정서적 탐색수준이 더 깊어지는 경향성을 보였으며, 친애욕구가 낮은 피험자에서는 반응유형과 반응내용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예언 2-1은 부분적으로만 지지되었다.

인지적 탐색반응. 인지적 탐색반응 백분율을 변량분석한 결과, 반응유형의 주효과 ($F(1,184)=$

표 4. 정서적 탐색수준 점수의 변량분석 결과

변산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반응 유형 (A)	17.52	1	17.52	0.54
반응 내용 (B)	42.19	1	42.19	1.30
친애욕구 (C)	192.00	1	192.00	5.92*
A×B	0.03	1	0.03	0.01
A×C	0.02	1	0.02	6.41 E-04
B×C	3.52	1	3.52	0.11
A×B×C	243.00	1	243.00	7.49**
오차	5971.42	184	32.45	

* $P < .05$. ** $P < .01$.

6.01, $P < .05$)만이 유의하였다. 자기관여 조건에서는 인지적 탐색반응 백분율 평균이 10.05이고 사실기술 조건에서는 14.70으로, 자기관여 조건보다 사실기술 조건에서 유의하게 더 많은 인지적 탐색 반응을 나타냈으며, 이는 예언 2-2를 입증하는 결과이다.

인지적 탐색반응 백분율에 따른 분석과는 달리, 빈도에 의한 분석에서는 반응유형의 주효과 외에 반응내용의 주효과 [$F(1, 184) = 4.07, P < .05$]와 친애욕구의 주효과 [$F(1, 184) = 4.07, P < .05$]가 유의하였다. 긍정적 조건에서는 평균이 2.70, 부정적 조건에서는 2.01로서 부정적 조건보다 긍정적

정서적 탐색수준의 총평(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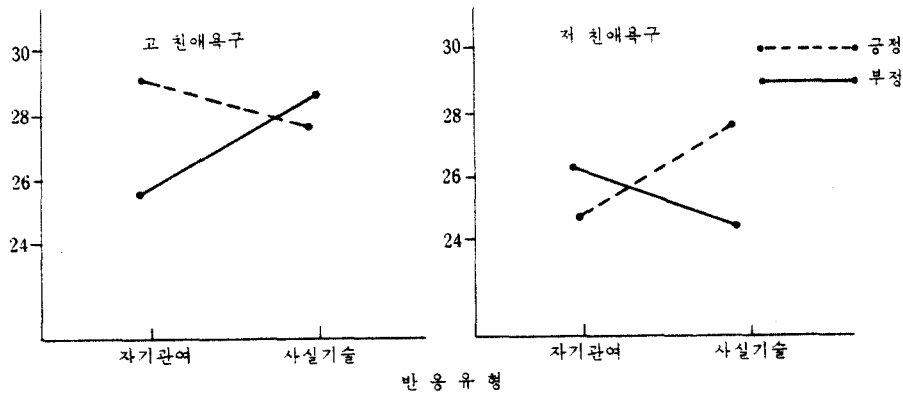


그림 3. 반응유형, 반응내용, 친애욕구에 따른 정서적 탐색수준

조건에서 더 많은 인지적 탐색반응이 나타났다. 친애욕구가 높은 집단은 평균이 2.70, 친애욕구가 낮은 집단은 2.01로서 친애욕구가 낮은 집단보다 친애욕구가 높은 피험자 집단에서 더 많은 인지적 탐색 반응을 보였다.

탐색적 요구반응. 각 집단별 탐색적 요구반응 백분율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탐색적 요구반응 백분율을 변량분석한 결과, 반응유형의 주효과 ($F(1, 184) = 21.29, P < .001$), 반응내용의 주효과 ($F(1, 184) = 3.99, P < .05$), 반응

표 5. 반응유형, 반응내용, 친애욕구에 따른 집단별 탐색적 요구반응 백분율의 평균 및 표준편차(괄호안)

반응내용 친애욕구 반응유형	긍정		전체	부정		전체
	자기관여	사실기술		자기관여	사실기술	
고	2.58(5.35)	2.21(5.12)	2.40	13.76(17.09)	1.19(2.49)	7.48
저	8.00(8.95)	1.15(2.74)	4.58	6.66(7.14)	2.64(7.85)	4.65
전체	5.29	1.68	3.49	10.21	1.91	6.06

유형×반응내용×친애욕구의 삼원상호작용 효과 ($F(1,184)=8.48, P<.01$)가 유의하였다.

자기관여 조건에서 평균이 7.75이고 사실기술 조건에서는 1.80으로 사실 기술조건보다 자기관여 조건에서 탐색적 요구반응을 현저하게 더 많이 보였다. 그리고 긍정적 조건보다 부정적 조건에서 유의하게 더 많은 탐색적 요구반응을 나타내었다. 반응유형×반응내용×친애욕구 삼원상호작용 효과를 검토해 보면,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친애욕구가 높은 집단에서만 반응유형×반응내용의 단순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했다 [$F(1,92)=21.29, P<.001$]. 친애욕구가 높은 집단에서 반응유형×반응내용의 단순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것은 반응내용이 부정적일 때 사실기술 조건에 비해 자기관여 조건에서 유의하게 더 많은 탐색적 요구반응을

나타낸 반면 [$F(1,46)=19.50, P<.001$], 반응내용이 긍정적일 때는 반응유형에 따른 탐색적 요구반응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친애욕구가 낮은 집단에서는 반응유형×반응내용의 단순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반응내용이 긍정적일 때와 [$F(1,46)=8.01, P<.01$] 부정적일 때 [$F(1,46)=7.39, P<.01$] 모두 사실기술 조건보다 자기관여 조건에서 유의하게 더 많은 탐색적 요구반응을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에 따르면, 친애욕구가 높은 피험자에서는 반응유형과 반응내용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고, 친애욕구가 낮은 피험자에서는 반응유형과 반응내용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탐색적 요구반응에 관한 예언 2-3은 지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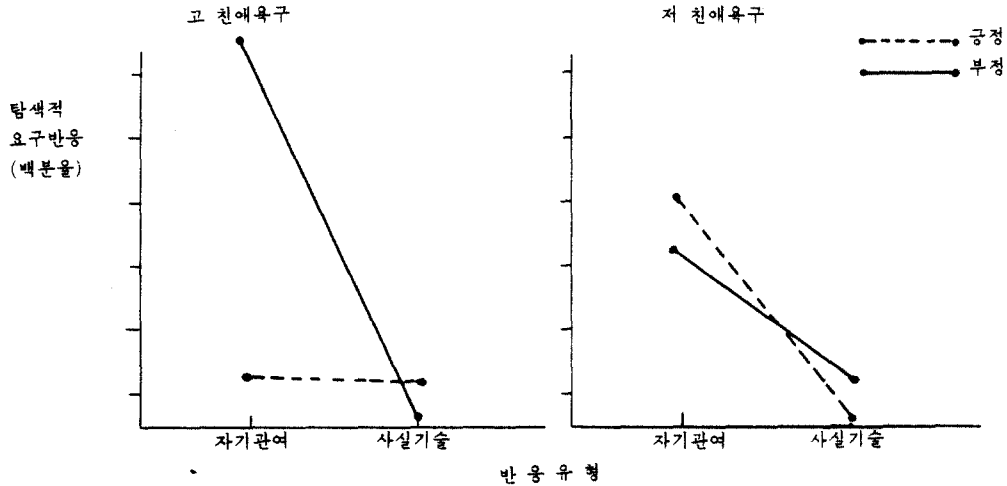


그림 4. 반응유형, 반응내용, 친애욕구에 따른 탐색적 요구반응

감정표현반응

각 집단별 감정표현반응 빈도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6에 제시되었다.

감정표현반응의 빈도를 변량분석한 결과 반응유형×반응내용×친애욕구의 삼원상호작용 효과만이 유의했다 [$F(1,84)=9.15, P<.01$]. 반응유형×반응내용×친애욕구의 삼원상호작용을 검토해 보면,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친애욕구가 높은 피험

자 집단과 [$F(1,92)=4.58, P<.05$] 낮은 집단 [$F(1,92)=4.58, P<.05$] 모두에서 반응유형×반응내용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했다. 친애욕구가 높은 집단에서 반응유형과 반응내용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것은 예언 3과 일치하는 것이나, 반응내용이 긍정적일 때 사실기술 조건보다 자기관여 조건에서 더 많은 감정표현을 하는 경향성을 보였을 뿐 [$F(1,46)=2.86, P<.10$], 반응내용이 부정적

표 6. 반응유형, 반응내용, 친애욕구에 따른 집단별 감정표현반응 빈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괄호안)

반응내용 친애욕구 반응유형	긍 정		전체	부 정		전체
	자기관여	사실기술		자기관여	사실기술	
고	5.21(3.09)	3.83(3.21)	4.52	3.50(2.54)	4.58(3.28)	4.04
저	3.21(1.57)	3.08(1.87)	3.15	5.38(3.92)	2.79(2.21)	4.09
전체	4.21	3.45	3.83	4.44	3.68	4.06

일 때는 반응유형에 따른 감정표현빈도에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친애욕구가 낮은 집단은 반응내용이 긍정적일 때는 반응유형에 따른 차이가 없으나, 반응내용이 부정적일 때는 예상과 달리 사실기술

조건보다 자기관여 조건에서 더 많은 감정표현을 하였다 [$F(1, 46) = 10.10, P < .01$].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예언 3은 부분적으로 입증된 것이다.

감정표현반응(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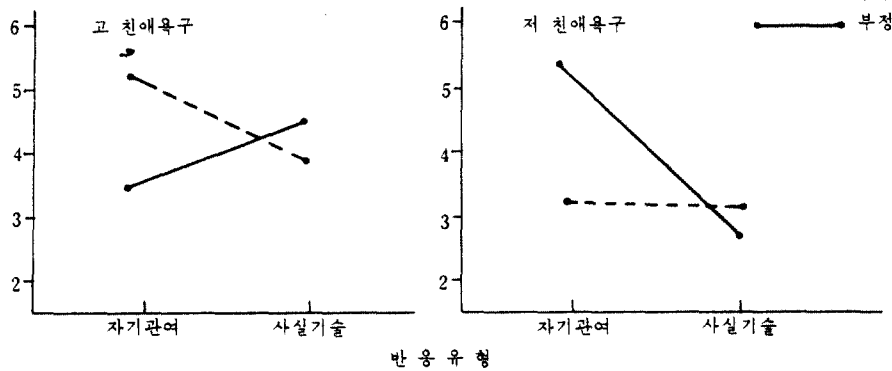


그림 5. 반응유형, 반응내용, 친애욕구에 따른 집단별 감정표현반응의 빈도.

논 의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가장 중요한 사실은 상담자의 언어반응 유형과 내용, 그리고 내담자의 친애욕구 수준들이 상담장면에서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양상은 본 연구에서 고려된 세 요인 모두가 상담의 과정목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시사한다. 상담자의 사실기술적-자기관여적 언어반응유형은 이론적으로 상담에 관한 정신분석적 입장과 인본주의적 입장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볼 때 각 입장의 치료적인 효율성은 상담자의 반응내용과 내담자의 친

애욕구 수준에 따라 좌우되는 듯하다. 즉 상담초기의 과정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정신분석적 태도로 볼 수 있는 사실기술적인 반응은 일반적으로 반응내용의 긍정성-부정성에 따른 치료적 효과의 차이를 크게 보이지 않으나 이에 비해 인본주의적 태도를 반영하는 자기관여적인 반응은 반응내용에 따라 내담자에게 미치는 효과가 현저하게 달라진다. 따라서 상담자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과 주관적인 의견을 진실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인본주의적 입장의 상담자는 특히 상담초기에는 내담자에 관한 부정적인 내용보다는 가능한 긍정적인 내용을 다루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타인에게 정서적으로 의존적인 친애욕구가 높은 내담자의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둘째로, 본 연구에서 선택한 세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 언어반응이 지니고 있는 평가적 속성에 주목하여 1차 예비실험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참고하여 예언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내담자 특성으로 친애욕구가 선택된 것은 상담자 언어반응의 이러한 평가성과 민감하게 상호작용하는 요인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연구결과에서 평가성 지각에 근거하여 설정한 호감도, 정서적 탐색 수준, 감정표현반응에 관한 예언들이 대체로 지지되었다. 이는 상담자 언어반응이 지니고 있는 평가적 강화속성이 이러한 내담자 반응을 유발하게 된 매개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즉 반응내용이 지니고 있는 긍정적-부정적 평가속성이 자기관계적 반응유형에서는 양극화되는 반면 사실기술적 반응유형에서는 이러한 속성이 약화된다. 이러한 평가적 속성의 변화양상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내담자의 호감도, 정서적 탐색수준, 그리고 감정표현반응이 나타났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양상이 평가적 강화속성에 예민한 친애욕구가 높은 내담자에게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상담자 반응이 내담자에게 얼마나 평가적으로 지각되는나 하는 정도가 초기의 상담과정에서 중요시되는 과정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말해 준다.

세째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종속변인들에 따라 독립변인의 효과가 나타내는 양상과 각 종속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음 몇가지 점이 드러난다. 첫째, 상담자에 대한 호감도와 정서적 탐색 수준, 그리고 감정표현반응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종속변인들은 위에서 언급한 상담자 언어반응의 평가성 지각의 정도에 의해 주로 매개되는 것이어서 독립변인에 대한 효과가 유사하게 나타난 듯하다. 둘째, 상담자에 대한 지각된 전문성과 인지적 탐색반응은 다같이 자기관계 조건보다 사실기술 조건에서 증가했다. 이러한 종속변인은 다른 종속변인들과 달리 상담자의 언어반응내용보다는 유형에 더 민감하게 영향받는 것으로 보여진다. 세째, 탐색적 요구반응은 다른 종속변인들과

대체로 역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독립변인의 효과에 있어서도 호감도 지각이나 정서적 탐색수준과는 반대의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본연구의 결과들과 함께 탐색적 요구반응은 문제해결에 있어서 상담자에 대한 의존적인 태도를 반영하는 것으로써 내담자 스스로의 자발적인 탐색노력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상담의 과정목표의 지표로서의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예 : Andersen & Anderson, 1985 ; McCarthy & Betz, 1978)에서 사용된 호감도 척도와 달리 호감도가 인상적인 차원의 호감과, 내담자의 주관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고 또 전문성에 대한 지각 등 상담자에 대한 총체적인 지각에 근거한 것으로 여겨지는 개인적인 호감도 영역으로 나누어 측정되어야 함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왜냐하면 호감도 영역에 따라 일부 독립변인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개인적 호감도 영역에서 의미가 없었던 반응유형과 반응내용의 상호작용 효과가 일반적 호감도 영역에서는 유의했고, 반면 일반적 호감도 영역에서 의미가 없었던 친애욕구 주효과 및 친애욕구와 반응유형의 상호작용 효과가 개인적 호감도 영역에서는 유의하였다. 이로써 인상적 차원의 호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반응유형 외에도 반응의 내용이 긍정적일 때 더 효과적이나, 같이 관계를 가지고 상담하고 싶은 마음을 유발하는 데는 반응유형과 더불어 내담자의 친애욕구 수준도 중요한 변인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상담자의 반응유형 중 사실기술 반응과 내담자 특성인 친애욕구에 대해서 사전 연구자료가 부족했던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사실기술적인 반응이 상담자에 대한 지각된 전문성과 내담자의 인지적 탐색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데 대한 충분한 설명이 어려웠다. 또한 친애욕구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어떤 특성을 지니는가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했기 때문에 상담자 언어반응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예측이 어려웠다.

둘째, 연구의 종속변인인 내담자의 자기탐색반응

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예비실험의 결과와 선행 분류기준에 기초하여 정서적 탐색수준, 인지적 탐색반응, 탐색적 요구반응의 분류기준을 새로이 설정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기준들에 대한 타당도나 신뢰도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제한점으로 지적된다.

세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의상담 실험방법은 실제 상담장면이 아니라는 점과 상담의 과정목표를 평가하기에는 상담의 시간 및 회수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제한점을 내포하고 있다. 아울러 모의상담 회수가 1회로 제한됨으로써 처치내용의 순서를 변화시킴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순서효과(sequence effect)를 밝힐 수 없었다.

(실제사례연구의 연구방법, 절차 및 결과제시는 지면관계상 생략함.)

참 고 문 헌

김수현(1986). 상담자평가척도. 미발표논문.
 정방자(1986). 정신 역동적 상담과정에서의 상담자와 내담자의 언어반응 변화분석. 미발표 박사학위 청구논문, 서울대학교.
 차재호(1984). 동기진단검사. 전인교육연구소.
 Andersen, B., & Anderson, W.(1985). Client perceptions of counselors using positive and negative self-involving statem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2, 462~465.
 Aronson, E., & Linder, D.(1965). Gain and loss of esteems, determinants of interpersonal attractivenes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 156~171.
 Bergman, D.V.(1951). Counseling method and client responses.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5, 216~224.
 Bordin, E.S.(1955). *Psychological Counseling*. New York : Appleton-Century-Crofts.
 Carkhuff, R.(1969). *Helping and Human Relations : A Primer for Lay and Professional*

Helpers. New York : Holt, Reinhart, & Winston.

Dowd, E.T., & Boroto, D.R.(1982). Differential effects of counselor self-disclosure, self-involving statements, and interpret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9, 8~13.
 Dyer, W.G.(1972). Forms of interpersonal feedback. *Training and Development Journal*, 26, 8~12.
 Eysenck, H.J.(1952). The effects of psychotherapy : An evaluation.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16, 319~324.
 Fishman, C.G.(1965). Need for approval and the expression of aggression under varying conditions of frust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 809~816.
 Frank, J.D.(1973). *Persuasion and Healing*(2nd ed.). Baltimore : Johns Hopkins Univ. Press.
 Freud, S.(1915). *Observations on Transference-love*. S.E., 12.
 Fromm, F.(1955). *The Sane Society*. New York : Rinehart.
 Garfield, S.L.(1983). Effectiveness of psychotherapy : The perennial controversy. *Prof. Psychol. Res. Pract*, 14, 35~43.
 Gardner, G.G.(1964). The Psychotherapeutic relationship. *Psychological Bulletin*, 61, 426~437.
 Green, R.A., & Murray, E.J.(1974). Expression of feeling and cognitive reinterpretation in the reduction of hostile aggress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3(3), 357~383.
 Greenberg, L.(1986). Change process research.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 Psychology*, 54(1), 4~9.
- Greenberg, L.(1983). *Psychotherapy Process Research*. In E. Walker(Ed), *Handbook of Clinical Psychology*(pp. 169~204). Homewood, IL : Dorsey Press.
- Greenson, R.R.(1967). *The Technique and Practice of Psychoanalysis*. New York :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Heller, K., & Goldstein, A.P.(1961). Client dependency and therapist expectancy as relationship maintaining variables in psycho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5, 371~375.
- Hill, C.E.(1982). Counseling process research : Philosophical and methodological dilemmas. *Counseling Psychologist*, 10(4), 7~19.
- Hoffler, A.(1985). Toward a definition of psychoanalytic neutrality. *Journal of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33(4), 771~796.
- Jacobs, M., Jacobs, A., Feldman, G., & Cavior, N.(1973). Feedback II—The "Credibility gap" : Delivery of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al and behavioral feedback in group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1, 215~223.
- Korchin, S.J.(1976). *Modern Clinical Psychology*. New York : Basic Books.
- Lauren, O.J.(1985). Self-confrontation : Effects and dilemmas in feedback processes (Doctoral dissertation, Kent State Univ.).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46(4), 1342.
- Leider, R.J.(1983). Analytic neutrality—a historical review. *Psychoanal. Inquiry*, 3, 665~674.
- Luborsky, L.(1971). Perennial mystery of poor agreement among criteria for psychotherapy outcom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7, 316~319.
- McCarthy, P.R.(1982). Differential effects of self-referent responses and counselor statu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9, 125~131.
- McCarthy, P.R., & Betz, N. E.(1978). Differential effects of self-disclosing versus self-involving counselor statem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5, 251~256.
- Mehrabian, A.(1970).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measures of affiliative tendency and sensitivity to rejection.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30, 417~428.
- Remer, R.(1978). Three mode of stimulus presentation in a situation that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Journal of Educational Measurement*, 15, 125~130.
- Remer, P., Roffey, B.H., & Buckholtz, A.(1983). Differential effects of positive versus negative self-involving counselor respons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0, 121~125.
- Reynolds, C.L., & Fischer, C.H.(1983). Personal versus professional evaluations of self-disclosing and self-involving counselor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0, 451~454.
- Rogers, C.R.(1951). *Client-Centered Therapy*. Boston : Houghton Mifflin.
- Rogers, C.R.(1955). *The Concept of The Fully Functioning Person*. Unpublished manuscript.
- Saul, L.J.(1972). *Psychodynamically Based Psychotherapy*. New York : Science House.
- Strachey, J.(1934). The nature of the

- therapeutic action of psycho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15, 127~159.
- Strong, S.R., & Dixon, D.N.(1971). Expertness, attractiveness, and influence in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8, 562~570.
- Taylor, S.(1970). Aggressive behavior as a function of approval motivation and physical attack. *Psychonomic Science*, 18, 195~196.
- Truax, C.B., & Carkhuff, R.R.(1965). Experimental manipulation of therapeutic condi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9, 119~124.
- Truax, C.B.(1968). Therapist interpersonal reinforcement of client-exploration and therapeutic outcome in group psychotherap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5, 225~231.
- Truax, C.B., & Carkhuff, R.R.(1967). *Toward Effective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Training and Practice*. Chicago: Aldine.
- Wolf, E.S.(1983). Aspects of neutrality. *Psychoanal. Inquiry*, 3, 675~689.

ABSTRACT

**A STUDY ON EFFECT OF COUNSELOR'S VERBAL
RESPONSE AND CLIENT'S LEVEL OF NEED
AFFILIATION UPON PROCESS VARIABLES IN
COUNSELING**

SOO HYUN KIM, CHANG HO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 trends in empirical research on counseling tend to place stress on process research on close analysis of interaction between counselor and client. In the same vein, special significance is given to process goals, namely, client's attraction to counselor, client's self-exploration and understanding, and feeling expression. This study has attempted to see how the interaction between counselor's variables—type self-involving/descriptive and valence positive/negative of counselor's statement—and client variable—level of need affiliation—affects client's responses.

To understand the effect of independent variables on dependent variables, two research methods were adopted: experimental method as applied to undergraduate subjects using analogue counseling script, and single case experimental method as applied to clients.

The results of this experimental study indicated that subjects whose need affiliation is high showed more attraction in the self-involving group than in the descriptive group in the case of positive valence but showed more attraction in the descriptive group than in the self-involving group in the case of negative valence. In the meantime, subjects whose need affiliation is low,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of attraction irrespective of the type of the statement in the case of negative valence, but showed more attraction in the descriptive group than in the self-involving group in the case of positive valence.